

꺄-분열문 주어의 상위언어적 의미

위혜경 * †
단국대학교

Hae-Kyung Wee. 2016. A Meta-linguistic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of *kes*-cleft construction. *Language and Information* 20.1, 111-125.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subject in a Korean *kes*-cleft construction denotes the discourse referent that stands for the entity that satisfies the description of the cleft clause. This denotation thereby can be understood as a meta-linguistic referent which refers to the linguistic expression for a presupposed entity. In support of this claim, it is shown an anaphoric expression *kekes* also can be analyzed as a meta-linguistic referent. This analysis can explain why the subject and the predicate of a *kes*-cleft in Korean allow animacy crash. (Dankook University)

Key words: *kes*-cleft, meta-linguistic, denotation, copula, equative clause, predicative clause, presupposition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의 의존명사인 -꺄의 의미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다음 예문과 같이 꺄분열 절의 의미적 기능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1a, b)와 (2a, b)의 문법성을 비교해 보자.

- (1) a. (민수가 어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민수가 어제 만난 게 김선생님이다.
b. (민수가 어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민수가 어제 만난 게 바로 저 화가이다.
- (2) a. (민수가 어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민수가 어제 만난 게 굉장히 예쁘다.
b. (민수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데,) *민수가 사귀는 게 화가이다. 1. †

(1)과 (2)의 밑줄 친 주어는 공통적으로 -꺄를 핵으로 갖는 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주어들은 선행절에 나타난 명사구 어떤 여자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경우 문법성은 서로 대조를 보인다. (2a,b)는 비문인데, 이 비문법성은 주어와 서술어 간의 생물성

* 귀중한 논평과 지적을 해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48-701 E-mail: hkwee@dankook.ac.kr

1 (1)의 예문들을 -꺄라는 축약 표현이 아닌 축약 이전 표현인 꺄¹로 (1a')과 같이 바꿀 경우 그 문법성이 더 나빠진다는 의견을 한 심사자가 제시하였다.

(1a') 민수가 어제 만난 꺄¹ 김선생님이다.

(animacy)의 불일치로 인한 비문법성으로서 다음과 같이 것을 일반명사로 바꾸게 되면 수용 가능한 문장이 된다.

- (2) a. 민수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민수가 만난 여자가 굉장히 예쁘다.
b. 민수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데, 민수가 사귀는 여자가 화가이다.²

(1-2)의 주어는 모두 -것이라는 공통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 -것은 의존명사로서 i)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ii) 사람을 낮추어 이르거나 동물을 이르는 말, iii) 그 사람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세 가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1-2)의 주어인 *민수가 만난 것은* -것이라는 의존 명사가 핵으로서 전체 주어는 무생물이나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2)의 문장에서는 선행절의 *그 여자를* 받는 주어로서 *예쁘고 화가인*이라는 술어로 이루어진 절의 주어에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사전적 의미 (i-iii) 중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행사의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어떤 여자를* 특별히 비하하는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문맥에서 (2)의 비문법성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1a)의 경우는 (2)와 마찬가지로 선행사로 *그 어떤 여자를* 의미하고 또한 술어인 *김선생님이*라는 주어를 낮추어 부를 수 없는 의미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것*절을 무난히 주어로 가지고 있다.

위의 두 경우의 문법성의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경우의 차이는 *것*의 담화적 의미의 차이에 기인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i) 온톨로지(ontology)에 실재하는 개체를 지칭하는 지시적(denotation) *것*, 'the one'의 의미와 (ii) 담화지시체(discourse referent)를 지칭하는 상위언어적 *것*의 의미의 두 가지 경우로서 (1)은 후자에 해당되고, (2)는 전자의 의미에 해당됨을 보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두 경우의 술어(predicate)와 전체 문장의 의미 유형적(semantic type) 차이에 대하여 논하고, 3장에서는 (1)의 주절은 상위언어적(meta-linguistic) 의미를 갖는 담화 지시체이고 (2)의 주절은 담화 모형 혹은 온톨로지에 실재하는 일반적인 개체(individual)를 지시하는 의미라는 분석을 제한한다. 4절에서는 상위언어적 지시의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로써 분열문의 주절뿐만 아니라 대용어 *그것도* 같은 상위언어적 지시로 해석 가능함을 보인다. 5절은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2. 의미 유형별 차이

먼저 (1)과 (2)의 문장의 주어와 술어의 차이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개체 유형(<e> type)과 속성 유형(<et> type)

첫째, (1)과 (2)의 의미적 차이는 술어의 유형에서 발견된다.

(1)의 주어 *것*절에 대한 술어 부분, *김선생님과 저 화가의* 의미 유형과 (2)의 *예쁘다, 화가이다*

² 물론 (1)의 문장들도 다음과 같이 -것 대신 일반 명사 *여자*로 바꾸어도 당연히 정문이다.

(1') a. 민수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민수가 만난 여자가 김선생님이다.
b. 민수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민수가 만난 여자가 바로 저 화가이다.

라는 의미 유형은 차이가 있다. 먼저 (1a)의 *김선생님*은 고유명사(proper noun)이고 (1b)의 *화가*는 한정 명사 (definite noun)이다. 이 두 가지 명사들은 의미적으로 개체유형 (e type)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2a)의 술어에 해당하는 *예쁘다*는 형용사로서 속성유형 (et type)인 자질을 의미하고, *화가이디*의 *화가*는 명사이지만 (1b)와 달리 주어의 직업을 뜻하며 'a painter'의 의미를 갖는 비 한정 명사 (indefinite noun)이다. 따라서 역시 속성유형(et type)인 자질의 의미를 갖는다. 즉, (1)과 (2)의 차이는 갯주어에 대하여 개체유형의 술어를 갖는지 속성유형의 술어를 갖는지에 따라 그 문법성이 갈리고 있다. (1)과 같은 개체유형의 술어는 (비하의 의미를 갖지 않는) 인물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뜻하는 갯절(phrase)을 주어로 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와 같은 속성유형의 술어는 인물을 묘사하는 경우 비하의 의도가 없이는 갯절을 주어로 취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하다.

- (3) a. 갯주어(인물) + 개체 유형
- b. *갯주어(인물) + 속성 유형

그렇다면, 왜 술어가 e 유형일 때 갯주어가 가능하고, et 유형일 때는 불가능할까? 그 이유는 3절에서 논하기로 하고 다음 소절에서는 (1)과 (2)의 두 번째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자.

2.2 분열절과 관계절

(1)은 술어가 개체 유형이고 (2)는 술어가 속성 유형임을 2.1에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1)과 (2)의 주어 포함 절 전체의 의미의 차이를 알아보자. (1)은 주어 개체와 술어 개체간의 동일성의 서술을 통한 주어 개체에 대한 정체 확인(identification)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이는 일반적인 한국어의 갯분열문의 의미로서 영어의 it-분열절이나 자유관계대명사(free relative)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E Kiss 1998, Reeve 2010, Barros 2012, 줄고 2015b 등 참조). 한국어든 영어든 분열절의 의미적 기능중 하나는 존재 전제를 갖는 개체와 술어에 나타난 개체간의 등가(equative) 서술을 하는 것이다. (4)의 경우 'John이 파티에서 만난 사람들=Mary와 Sue'라는 의미를 갖는다.

- (4) It was Mary and Sue that John met at the party last night.

또한 이 분열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presupposition)의 의미를 갖는다.

- (5) a. $\exists x$ (john met x at the party)
- b. $\#y$ ($x \neq y \wedge$ John met y at the party)

(5a)는 존이 파티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존재(existential)의 의미이고 (5b)는 존이 만난 누군가는 x 이외에는 없다는 전체성/총망라성(exhaustivity)의 의미이다. 그리고 이 두 의미는 일반적으로 분열문의 전제 의미(presupposition)로 Horn (1981), E Kiss (1998), Velleman et al. (2012), Buring&Kriz (2013) 등 많은 의미론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1)의 한국어 분열문도 영어의 분열문과 같이 두 가지 전제 의미를 만족시킨다. (6a)와 같은 존재 전제의 의미

와 (6b)와 같은 전체성의 전체 의미를 갖는다.

- (6) a. 민수가 누군가를 만났다.
b. 김선생님이 민수가 만난 사람 전체이다.

다음의 (1')의 비문법성/비적정성(infelicity)을 통해서 (6a)가 (1a)의 존재전제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의 비문법성/비적정성을 통해서 계사구에 나열된 항목들은 '갯절'을 만족시키는 목록 전체여야 한다는 전체성의 전체도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 #민수가 누군가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가 만난 게 김선생이다.
(1'') #민수가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다는 모르겠지만, 민수가 어제 만난 게 김선생이다.

따라서 (1)의 문장들은 (i) (6a,b)와 같은 전체의미를 지니고, (ii) 갯주어의 정체를 확인시키는 의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분열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의 문장은 존재 전체의 의미는 있지만, 전체성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민수가 만난게라는 주어는 민수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존재전제는 가지고 있지만, 술어에 나타나는 예쁘다라는 속성은 주어가 가지는 전체 속성의 나열이라고 보기 어렵다. (2)는 비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정문인 (2a')의 문장을 통해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속성에 추가적인 속성을 덧붙여도 의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2'') a. 민수가 만난 여자는 예쁘다. 그리고 또 현명하다.
b. 민수가 만난 여자는 화가이다.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다.

(2)는 (1)과 달리 정체확인(identification)의 의미를 갖지도 않고, 또한 분열문의 의미중 하나인 전체성의 의미를 갖지도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2)의 문장은 분열문이 아니라 다음 예문들과 같이 일반적인 주어와 속성 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 (7) a. 수미는 예쁘다. 그리고 현명하다.
b. 수미는 화가이다.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2)의 갯주어는 (1)의 갯분열절의 의미로 해석이 불가하고, 일반적인 사물을 대응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사람을 묘사하는 의미의 속성술어와 의미 부조화를 유발시킨다. 이것이 (2)가 의미적 비문인 이유이다.

종합하면, (1)은 분열문의 의미기능인 '정체확인' 기능과 두 가지 전체 의미인 '존재 전체'와 '전체성 전체'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열문이고, (2)는 분열문이 아닌 일반적인 서술문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1)의 갯주어는 가능하게 하고, (2)의 갯주어는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2)은 속성 술어를 허용하는데 이는 갯이 앞의 물건 *벡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2') 어제 민수와 영수가 벡터를 샀는데, 민수가 산 게 무척 예쁘다.

그렇다면, 이렇게 (1)과 같은 갯분열절의 갯과 (2)의 갯의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을 다음 절에서 제안해 보겠다.

3. 상위언어적 담화 지시체 (meta-linguistic discourse referent)

(1)의 갯분열문에서는 왜 갯분열절과 *선생님*같은 존칭의 대상의 주술 관계가 무난히 성립될 수 있을까? ‘사간’을 의미하지도 않고 비하의 의미도 없으므로 -갯은 무생물이어야 하고 *김선생님*이나 *저 화가*와 같은 개체는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사람의 의미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적어도 의미적 화용적 비문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논의했듯이 (1)에서 이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선 이에 대한 Kim&Sells(2008)의 설명을 검토해 보겠다.

3.1 지시성(referentiality)

분열절을 이끄는 갯의 의미에 대해서 Kim&Sells(2008)는 비지시적(non-referential)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 (8) a. *수미가 존이 만난 것이다.
 b. 이 책이 존이 산 것이다.³
 (9) a. 존이 만난 것은 수미이다.
 b. 존이 산 것은 이 책이다.

(8)의 두 문장의 갯절은 (9)의 두 문장에는 발생하지 않는 문법성의 대조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Kim&Sells는 두 경우의 갯의 지시성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8)은 지시적(referential) 의미를 지니지만 (9)는 비지시적(non-referential)이라는 주장이다. 이 차이가 생물성(animacy) 불일치에 의해 생겨난 비문 발생 여부도 설명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갯절이 생물성 조건을 준수한다면 지시적인 의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지시적인 의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8)의 갯은 지시적 의미이기 때문에 생물성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비문이 되고, (9)와 같은 분열문의 주어에 발생하는 갯절은 비지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생물성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비지시적(non-referential)이라는 성질은 담화모형에 존재하는 어떤 개체도 지칭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슨 의미를 지닌다는 것일까. 지시적의 반대 개념은 보통 허사(expletive)를 의미하지만 갯분열절의 갯이 의미적으로 아무런 내용을 가지지 않는 허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어의 it-분열절에서 it은 허사로 분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Reeve 2010, Barros 2014 등) it과 that절을 합쳐서는 하나의 한정표현(definite description)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며, 자유관계대명사(free relative)의 의미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같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Rullman 1995).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 분열문의 갯절도 영어와 같이 일종의 한정표현의 성격

3 Higgins(1973)에 의하면 영어의 경우 다음과 같은 wh-구문은 계사를 중심으로 도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한 두 언어 간의 차이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구문에 대한 분석 방법의 한가지로 Moltman(2013) 참조 바람.

(8) a. What John saw is Mary. b. Mary is what John saw.

을 지니고 있다. 주어에 나타나는 한정 표현은 개체를 지시하는 지시적(referential) 표현이다.⁴ 따라서 *갓분열절을 비지시적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Kim&Sells는 다음과 같이 후치사구 초점과 함께 발생하는 분열문의 주어도 비지시적이라고 주장한다.

(10) 미나가 그 책을 산 것은 LA에서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분열절은 *미나가 책을 산* 사건을 의미하고 초점(pivot)에서는 그 사건의 장소(location)를 명시하며 주어인 사건에 대한 서술(predication)을 하는 구조이다. 졸고(2015a)는 분열문의 초점의 후치사 발생여부에 따라 *갓분열절*의 의미가 ‘일반 개체 지시’와 ‘사건 개체 지시’로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10)과 같이 장소 등을 표시하는 후치사와 함께 발생하는 초점(pivot)은 의미적으로 그에 부합하는 주어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즉, LA에서라는 장소는 미나가 그 책을 산 ‘사건’이 발생한 장소다. 따라서 *갓주어절*은 사건을 지시하는 의미를 가져야 술어와의 의미 결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10)와 같은 분열문의 *갓주어*는 사건(event) 개체를 지시하는 지시적 표현이다.

한편, (1a,b)와 같이 후치사 없이 발생하는 초점의 분열절 주어는 그 분열절에서 명시되지 않은 논항을 지시한다. 졸고(2015a)에서는 “분열문의 주어인 *갓분열절* (cleft clause)은 ‘의미적 필수 논항(argument)이 누락된 경우 그 논항에 해당하는 일반 ‘개체’ (e type)를 지칭하고, 초점은 분열절과 같은 ‘개체’ 타입으로서, 분열문 전체는 ‘등가문 (XP=YP)’의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제안한다.

(11) 무후치사 분열문의 의미

- a. *갓분열절*(cleft clause)의 의미 유형: 논항 개체 유형(individual type)
 - 비명시된 의미적 필수논항 지시
- b. 초점(pivot)의 의미 유형: 개체 유형(e type)
 - 분열문 전체 의미: XP분열절=YP초점의 등가절(equative clause)

즉, (1a)의 *갓분열절*에는 만난다는 사건의 대상(theme)에 해당하는 논항이 명시되지 않아 *갓분열절*이 논항에 해당하는 개체를 지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초점에 발생하는 개체는 그 대상(theme) 논항의 정체를 밝혀주기 위해 ‘대상 논항 개체’와 ‘초점 개체’간의 등가서술을 발생시킨다. 이때 초점과 함께 발생하는 *계사 -오*의 의미는 두 개의 항을 취해 등식을 표현하는 2항술어의 의미를 갖는다. 즉, (1a)의 의미는 (1'a)과 같은 의미를 발생시킨다.

(1'a) 민수가 만난 사건의 대상(THEME) 논항=김선생님

한편 후치사 초점과 발생한 (10)의 *갓주어절*은 행위자(agent)와 대상자(theme)의 모든 논항이 포화(saturate)된 미나가 책을 산 ‘사건(event)’을 지시하며, 그 사건의 장소를 서술해주는 술어적(predicate) 표현이 전체 문장의 의미이다. 이때의 *계사 -오*의 의미는 일반적인 영어 서술

4 술부에 발생하는 속성적 유형의 한정표현의 경우에는 존재전제를 유발하지 않고 개체 유형이 아닌 속성유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어에 있는 한정표현은 존재전제를 유발하는 개체 유형이다. (Barros 2014)

문의 계사(copula)처럼 의미적으로 공백(semanticly vacuous)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다.⁵ (10)의 의미는 일차술어 논리식으로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15)과 같다.

(15) in_LA(e), where $\exists e(\text{meet}(e), \text{agent}(e)=\text{mina}, \text{theme}(e)=\text{the_book})$

그래서 (1)의 전체 문장은 등가절(equative clause)을 (10)은 사건 개체에 대한 처소를 서술해 주는 서술절(predicative clause)을 형성한다.⁶

결론적으로, Kim&Sells의 주장과 달리 (10)의 갯절도 역시 비지시적 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사건(event e)’을 지시하는 지시적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 즉, 갯분열절은 명사든 사건이든 개체를 지시(denote)하는 지시적(referential) 표현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생물성 조건을 위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즉, 같은 지시체인데 (1a,b)에서는 주어로 가능하고 (2a,b)에서는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음 소절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분열절은 개체 지시의 의미를 갖되, 일반적인 지시 표현과는 다른 담화적 차이를 통해 그 이유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3.2 담화지시체

분열절의 -갯 주어는 실제로 ‘사물’을 지칭한다는 것임을 주장한다. 그런데 (2)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명사로서 선행절의 인물이나 사물을 바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도입된 ‘담화지시체를 다시 지칭하는 것임을 제안한다. 즉, (1)의 분열문에서 갯이 사물을 지칭하기는 하되 선행사 어떤 여자를 직접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을 받는 대명사라는 제안이다. 즉, 아직 담화 모형(discourse model)이나 온톨로지(ontology)에 존재하는 실제 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발생한 담화지시체, 즉, 그 존재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언어 표현을 지시하는, Horn(1989)의 용어를 빌자면, 상위언어적(meta-linguistic) 지시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담화지시체의 존재에 대한 Karttunen (1976)의 논의를 고려해보자.

(12) Consider a devise designed to read a text in some natural language, interpret it, and store the content in some manner,... the machine has to be able to build a file that consists of records of all the individuals, that is, events, objects, etc., mentioned in the text, for each individual, record whatever is said about it....

언어를 처리하는 기계나 인간은 모든 개체, 사건이나 사물들을 위한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고 그 개체에 대해 앞으로 기술되는 내용을 계속 그 파일에 기록하고 저장하는데 이 파일이 하나의 담화지시체(discourse referent)라고 명명된다. 개체들이 고유명사로 발생할 경우엔 곧바로 존

5 한국어 계사의 용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2015b)를 참조 바람.

6 등가절(equative clause)과 서술절(predicative clause)은 Higgins (1973, 1979)가 영어의 계사의 기능에 따른 문장의 종류로 제시한 네 가지 중 두 가지에 해당한다. 한 심사자는 한국어 갯분열문의 경우 (8)에서 보았듯이 도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등가절이라기 보다는 Higgins의 네 분류 중 다른 하나인 구체화절(specificational clause)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분류 방법에 대하여는 저자마다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도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후속 연구에서 심도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한다.

재론(ontology)에 존재하는 개체로서 특정 인물을 지칭할 수 있다.

반면, 비한정명사의 발생은 그 존재에 대한 정확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즉, 담화영역의 존재론(ontology)에 존재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개체를 위한 변항을 담화 지시체로 도입하여 그에 대한 기록을 시작해야 한다.

- (13) ...the appearance of an indefinite NP implies the existence of some specific entity that our hypothetical text interpreter should record the appearance of a new individual.

이와 같은 담화 지시체의 개념은 담화표상이론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Kemp & Reyle 1993)에서 같은 명칭과 개념으로 구현되었다. 고유명사와 비한정명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담화구조에 도입된다.

- (14) Pedro owns a donkey. He beats it.

(15)

u, v
Pedro owns a donkey.
u=pedro
donkey(v)
u owns v

위의 예문 (14)는 DRT의 담화표상 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DRS)인 (15)에 표시된다. 이 DRS에 두 개의 DM(discourse marker)이 발생한다. 하나는 고유명사 Pedro인 u이고, 하나는 비한정 표현인 a donkey에 대한 v이다. 이때 u는 처음부터 pedro라는 지시체와 u=pedro라는 동일 서술을 통해 그 정체가 확인(identify)된다. 주어진 모형 M에서 pedro라는 개체 원소(element)가 존재하고 그가 당나귀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문장은 참이 된다. 반면, v라는 DM은 모형 M에서 변항할당함수 (variable assignment function)인 g에 의해 donkey라는 명사의 외연(extension)의 원소 중 하나에 할당가능하기만 하면 되고, 고정된 특정 개체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1,2)의 *갓절*(clause)에 발생하는 명사는 어떤 담화지시체적 성격을 갖고 도입될 것인가? 우선, 고유 명사가 사용될 때는 Karttunen에서도 논의되었고, DRT에서도 표기된 대로 담화지시체 u를 그 이름의 지시체 Pedro라는 인물과 u=pedro라는 등가서술을 통해서 모형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로 그 정체가 확인된다. 반면, 비한정 명사구는 그러한 정체확인 (identification)의 절차를 겪지 않은 상태로 모형 안에 어떤 개체를 지시하지는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위의 예에서 u는 donkey 중의 하나라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다. (1,2)의 주어도 둘 다 같은 비한정명사구에 의해 담화지시체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1)에서는 확인 초점을 동반하는 분열문으로 사용되고, (2)에서는 그 담화 지시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가 저장해야 하는 상태로 발생한다. 즉, (1)의 *갓절*은 분열문을 통한 확인초점의 서술

에서 발생하는 주어로서 일반적인 사물의 의미를 나타내는 (2')의 *갯*의 의미와는 다르다. 다음 소절에서 그 차이점을 두 가지 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3 지시적 지시체(denotational referent)와 상위언어적 지시체

첫째, (1)의 명사구의 의미(denotation)는 일반 지시적(denotational) 표현과 같이 담화 맥락에서 실재하는 개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직 온톨로지에서 그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담화 중 발생한 언어적 표현만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존하는 개체에 대한 지시적 표현이 아니라, 언어 표현으로 존재하는 개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사람을 지칭할 수 없는 *갯*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갯*절은 “민수가 만났다”고 표현된 *갯*의 의미를 가지고 아직 담화 현실의 존재론(ontology)에 실존하고 있는 사람을 지시(denote)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담화 개체를 다시 지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표현’을 지시대상(denotation)으로 갖는 상위언어적(metalinguistic)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 모형(discourse model)에 있는 실재하는 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발화에서 발생한 언어 표현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화 지시체는 분열문의 초점(pivot)의 개체와의 등가 서술을 통해 정체확인(identify)이 되어야만 존재론(ontology) 혹은 담화 모형(discourse model)에 실존하는 인물 개체를 지시(denote)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보면, 문장 (1)의 *갯*절의 의미는 인용부호(quotation)안에 있는 표현과도 유사하다.

- (16) a. John went to London.
b. ‘John’ is an English name.

위의 예문은 의미론과 철학에서 예전부터 분류해왔던 표현의 두 가지 쓰임인 ‘사용(use)’과 ‘언급(mention)’의 차이를 보여준다.⁷ (16a)의 John 이라는 단어는 John이라는 실제 인물을 지시(denote)하지만, (16b)의 ‘John’이라는 인용(quotation)은 그 표현 내지는 단어를 지시하는 상위언어적 지시체이고 이러한 면에서 (1)의 분열절의 의미가 상위언어적 개체와 유사성을 가진다. 즉, *민수가 만난 것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민수가 만난 대상(=어떤 여자)*’으로 표현된 담화 지시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개체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갯*의 의미를 상위언어적 인용과 같은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한 심사자의 지적대로 (1)의 의미는 (1')과 같이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는 ‘어떤 여자’라는 언어 표현이 *김선생님*과 같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1') 민수가 어제 만난 ‘어떤 여자’가 김선생님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위언어적(meta-linguistic)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Horn(1989)이 논의한 현상들도 엄격한 의미에서 순수하게 상위언어적이지만 한 해석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Guerts는 다음과 같은 Horn의 (1989:371, 379) 예문들도 순수하게

7 Cappelen, Herman and Lepore, Ernest (2012) 참조.

상위언어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 (17) a. He didn't call the POlice, he called the poLIce.
 b. The formulator of relativity theory wasn't Einst[iy]n but Einst[ay]n.
 (p.379)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17) a. He didn't call the <official body whose name is pronounced 'POlice'>, he called the <official body whose name is pronounced 'poLICE'>.
 b. The formulator of relativity theory wasn't <a man called 'Einst[iy]n'> but <a man called Einst[ay]n>.

위의 상위언어적 표현들은 (17)에서 보듯이 인용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의미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언어표현지시와 일반지시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상위언어적 현상이라는 것이 (16b)와 같이 오직 언어 표현만을 지시하는 현상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17)과 같이 두 측면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의 문장도 '민수가 어제 만난 어떤 여자라는 언어표현이 김선생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민수가 어제 만난 어떤 여자라고 표현된 존재라는 의미로 인용과 지시가 더해진 표현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는 Horn 자신이 상위언어적 표현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예문의 현상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상위언어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급 혹은 인용 표현인 언어적 표현과 일반적 지시표현의 복합체로서 화용적 해석의 도움이 필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갯질'의 의미에 대하여 제시한 상위언어적 지시체라는 현상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지시와 인용이 더해진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의 의미를 (1')이 아닌 (1'')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민수가 어제 만난 여자라고 표현된 지시체>는 김선생님이다.

반면, (2)의 경우는 서술어가 속성 유형이기 때문에, 주어가 실존하는 개체로서 그에 대한 서술적 정보를 바로 저장할 수 있는 상태로 취급되고 있다. 즉, 분열문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언어적 지시체가 아닌 일반적인 담화지시체로서 인물을 의미하는 주어라야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한 술어와 함께 결합될 수 있다. 때문에 (1)의 *민수가 만난 것*과 같은 사물을 표시하는 주어는 (2)의 주어진 술어의 의미에 적합하지 않다. 주술간의 의미적 선택조건 (selectional restriction)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수가 만난 사람/여자와 같은 지시적(denotational) 표현, 즉 언급(mention) 표현이 아닌 사용(use) 표현으로 실제 인물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져야만 가능한 문장이다. 일반적인 것의 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2)과 같이 앞에 나온 비한정명사를 받는 대응어로 쓰일 때 고정된 담화 모형에 실재하는 개체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속성적 술어와 함께 문장을 이룰 수 있다.

둘째, 분열문은 개체에 대한 등가서술을 통해서 정체를 확인해 주는 의미적 기능을 하는 구문이다. (12)에서 논의한 고유명사의 담화지시체가 담화구조에 도입되는 과정을 다시 상기해 보자.

u라는 담화지시체가 pedro라는 인물과 등가 서술을 통해 그 담화지시체를 담화모형의 실제 존재로 고정시키는(anchor) 과정이 있었다. 분열문의 문장이 바로 이러한 담화 지시체를 실제 개체에 고정시키는 과정을 문장의 통사적 구조를 통해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졸고(2015a)에서는 3.1에서 논의한 대로 등가절 분열문의 기능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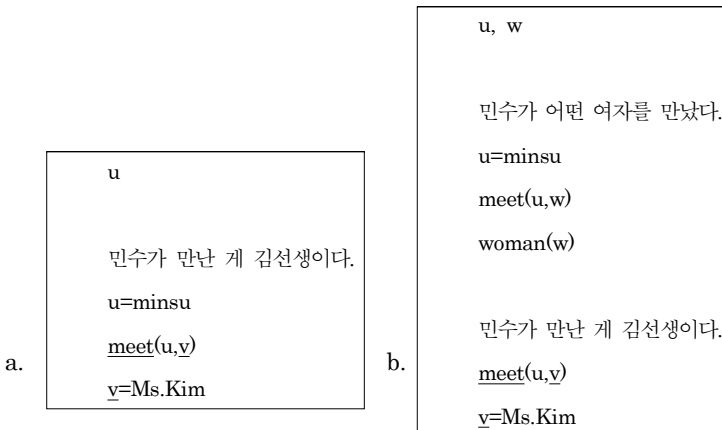
분열절이 지시하는 개체는 아직 명시되지 않은 필수 논항을 지시한다는 점에서도 실존하는 개체에 대한 지시적(denotational) 표현이 아니라 언어표현을 지시하는 상위언어적 표현이다. 그리고 분열문의 초점은 이 밝혀지지 않은 논항의 존재들, 행위자(agent), 대상(theme), 혹은 수여자(goal) 등의 논항의 정체를 등가서술을 통해 확인(identify)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다시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하기 위해 DRT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Geurts(1998)의 전제된 담화지시체라고 볼 수도 있다. (1a)'처럼 앞에 선행절이 없이 분열절이 발화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 (1) a. (민수가 어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민수가 어제 만난 게 김선생님이다.
- a'. 민수가 어제 만난 게 김선생님이다.

2.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열절은 존재전제를 가지고 있다. 전제란 (1a)와 같이 선행발화가 있을 때는 그에 의해 만족될 수도 있지만, (1a')과 같이 선행발화 없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Lewis의 전제 수용(presupposition accommodation)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즉, 앞에 누군가를 만났다는 내용이 없으면 분열절 (1a')은 걱정성(felicity)을 지키기 위해 그 전제 내용을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수용의 과정을 겪는다. van der Sandt(1992)와 Geurts(1998) 등에 따르면 전제란 일종의 대용(anaphora) 표현으로 앞의 선행사에 의해 결속되거나 마땅한 선행사가 없으면 혼자서 수용되는데 어느 쪽이든 전제된 내용은 일단 담화표상구조에 갱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DRS를 상정해 볼 수 있다.

(18)



Geurts(1998)를 따라 DRS에서 전제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표기로 밑줄을 사용했다. 앞서 논한 대로 이 부분은 문장의 단언(assertion)이 아니라 전제(presupposition)이기 때문에 선행 발화에 의해 결속되어 만족이 되거나, 선행발화가 없을 경우 수용(accommodate)을 해야 한다. 이 전제된 부분은 분열문의 *갓*분열절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v*라는 존재를 민수가 만났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전제된 내용은 앞의 선행사가 있을 경우 (17)과 같이 그 선행사 *meet w*를 전제된 *meet v*와 일치시키는 결속과정을 통해 전제가 만족되어 변항 *v*는 결국 *w*로 변경된다.

만약 선행 발화가 없다면, 전제된 존재인 *v*는 처음 발생 시 국지적(local)이고 임시적인 지시체였다가, 수용(accommodate)을 통해 실재하는 지시체로 전체적(global) 층위에 (19)와 같이 갱신된다.

(19)

<p><i>u, v</i></p> <p>민수가 만난 게 김선생이다.</p> <p><i>u</i>=minsu</p> <p>meet(<i>u,v</i>)</p> <p><i>v</i>=Ms.Kim</p>
--

결국 (17a)의 밑줄 표시된 전제된 *v*라는 지시체는 분열문에 발생 시에는 밑줄로 표시된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지시체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DRT의 전제 처리 과정을 통해서도 언어적으로만 존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갓*분열절의 상위언어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열문의 *갓*분열절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나는 *갓*분열절 주어의 의미는 담화모형에 실재하는 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에서만 존재하는 아직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논항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상위언어적 표현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사물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것*을 핵으로 갖는 주어를 이끌 수 있다. 둘째, 아직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언어적 지시체를 분열문의 등가서술 구문을 통해 확인시켜 온톨로지의 개체에 고정시킴으로써 상위언어적 지시체가 아닌 모형의 실제 인물과 동일한 존재로 정체확인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 및 기능을 통하여 분열문의 *갓*주어는 생물성의 불일치에 따르는 비문법성을 초래하지 않고 정문으로서 해석이 가능해 진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갓*분열절의 상위언어적 언급(mention)이 대용어 *그것*이라는 표현에도 적용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분열절의 상위언어적 지시적 용법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대용어 그것의 상위언어적 용법

(20-21)의 대용어 *그게*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 (20) a. 민수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i 김선생님이다.
- b. 민수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i 바로 저 화가이다.
- (21) a. 민수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i 굉장히 예쁘다.
- b. 민수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데, **그게*i 화가이다.

대용어 *그게*도 *것-분열절*과 기본적으로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은 *것-분열절*은 (1-2)에서 관찰한 것처럼 선행사 없이도 성립되지만, 대용어 *그게*를 주어로 가질 때는 그 지시 대상을 알기 위해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과 (2)의 대조와 마찬가지로 대용어 *그게*를 주어로 갖는 문장에서도 사물 주어인 *그게*가 역시 개체 유형인 술어와 발생하여 등가 서술(equative clause)을 통한 정체확인 구문의 주어로 쓰일 때는 (20a,b)와 같이 정문인 반면, 그 주어를 직접 서술하는 속성 유형의 술어와 함께하는 서술문(predicative clause)은 (21a,b)와 같이 비문이 된다. 3절에서 제안한 상위언어적 지시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자면, *그게*는 *분열절의 것-주어*와 마찬가지로 선행절의 <어떤 여자라고 표현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상위언어적 지시체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 그 존재가 온톨로지에 있는 실제 개체로 확인되지 않고 언어적으로 표현된 개체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술어에 개체 유형(e type)이 나타나는 (20)의 경우에만 정문이 가능하고, 확인초점이 발생하지 않는 속성 유형(et type)의 술어와는 비문이 된다는 (3)의 일반화에 부합하게 된다.

- (3) a. **것-주어*(사람 의미) + 개체 유형
- b. *것-주어*(사람 의미) + 속성 유형

3절에서 논의한 *분열절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20a,b)는 XP는 YP이다와 같은 구문으로서 *계사 -이*는 XP(*그게 그것*)와 YP의 두 의미적 개체유형을 취해 서로 등가 관계를 성립시켜주는 2항술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21a,b)에서와 같이 XP가 개체 유형이 아닌 속성 유형인 et 타입의 술어라면 담화지시체를 지시하는 e 타입 주어 *그게*와는 등가 서술을 할 수가 없다. 즉, *그것* <e>=*김선생님*<e>은 같은 개체 유형으로 가능하지만, *그것*<e>=*화가*<e,t>는 개체타입 *그것*과 속성타입 *화가*이기 때문에 같은 명사라 하더라도 등가 서술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것*<e>=*예쁜*<e,t>과 같은 형용사와의 등가 관계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즉, *화가*는 일반 명사구이기 때문에 형용사 *예쁜*과 같은 속성 유형(et 타입)으로서 주어 개체에 대한 속성을 묘사하는 술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상위언어적 지시체로 해석할 수 없다. (21'a,b)에서와 같이 주어가 일반적인 개체를 지시할 때나 아니면 (22)와 같이 선행사가 정말로 사물이라서 일반적인 개체 지시로 *그게*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만 속성 유형의 술어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 (21') a. 민수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i 굉장히 예쁘다.
- b. 민수가 어떤 여자와 사귀는데, 그 여자가i 화가이다.
- (22) 민수가 인형i 하나를 샀는데, *그게*i 굉장히 예쁘다.

결론적으로, (1a,b)와 (20a,b)에 나타난 주어인 꺾분열절과 대용어 그것은 등가절로 발생시 (18a,b)에서 보았듯이 담화표상구조(DRS)에 전체층위적(global)으로 갱신되는 실재하는 개체가 아니라 국지적(local)으로만 발생하는 언어표현을 지시하는 상위언어적 담화지시체라는 점에서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담화지시체=인물의 등가절을 통해 미확 인된 담화지시체를 실존하는 인물로 정체확인시켜 주는 의미를 갖는다.

이상으로 3절에서 제안한 한국어 꺾분열문의 주어가 상위언어적 지시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서 분열절 뿐만 아니라 대용어 주어도 같은 상위언어적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분열문의 주어가 상위언어적 지시체임을 보임으로써 계사구와 개체 유형이 발생하는 (1)과 같은 문장과 계사구에 속성유형이 발생하는 (2)와 같은 문장 간의 문법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1)의 문장은 정체확인의 기능을 하며, 존재 전체와 전체성/총량라성 전체의 의미를 갖는 꺾분열문으로서 분열문의 주어인 꺾분열절은 존재론적으로 실재하는 개체(individual)가 아닌 상위언어적 담화지시체를 지시한다. 그리고 꺾분열절 대신 (20)과 같이 대용어 *그게*가 주어에 발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위언어적 담화 지시체를 지시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때의 분열문의 의미와 대명사+서술어의 의미는 등가 서술에 의한 등가문(equative clause)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둘째, (2)에서와 같이 형용사나 속성타입의 명사구가 계사구에 발생할 경우 주어는 담화지시체가 아닌 담화 모형의 온톨로지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인물이나 사물을 지시하는 지시적(denotational) 기능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행사가 인물인 경우 사물을 지칭하는 *그게*로 받으면 생물성의 위반으로 인하여 비문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손근원. 2000. 계사구문에 대한 비수문, 비분열 접근법. *생성문법연구* 10: 267-295.
 위혜경. 2015a. 분열문의 의미와 초점 후치사의 수의성. *어학연구* 51-3: 771-792.
 위혜경. 2015b. 슬루싱의 두 가지 의미 유형. *언어와 정보* 19-2: 109-125.
 Barros. 2012. A Non-repair Approach to Island Sensitivity in Contrastive TP Ellipsis. *CLS* 48.
 Barros. 2014. Slucing and Identity in Ellipsis. Doctoral Dissertation. New Brunswick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Buring, Daniel & Manuel Kriz. 2013. It's that, and that's it! Exhaustivity and homogeneity presuppositions in clefts (and definites). *Semantics & Pragmatics* Volume 6: 1 - 29.
 Cappelen, Herman and Lepore, Ernest. 2012. "Quotation", *The Stanford*

- Encyclopedia of Philosophy (Spring 2012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pr2012/entries/quotation/>>.
- Davidson, Donald. 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 Geurts, Bart. 1998. The mechanisms of denial. *Language* 74: 274-307.
- Higgins, Francis Roger. 1973.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MIT.
- Higgins, Francis Roger. 1979.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Garland Publishing.
- Horn, Larry. 1981. Exhaustiveness and the semantics of clefts. *New England Linguistic Society* 11: 125-142.
- Horn, Larry. 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mp, H &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Dordrecht: Kluwer.
- Karttunen, Lauri. 1976. *Discourse Referents in Syntax and Semantic* vol. 7. Academic Press.
- E Kiss, K. 1998. Identificational focus versus informational focus. *Language* 74. 2: 245-273.
- Mikkelsen, Line. 2005. *Copular Clauses*. John Benjamins.
- Moltmannm Frederike. 2013. Identificational Sentenc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21: 43-77.
- Reeve, Matthew. 2010. *Clef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Rullman, Hotze. 1995. *Maximality in the Semantics of Wh-Construction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dissertation.
- Van der Sandt, Rob.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9: 333-77.
- Velleman, D. B, D. Beaver, E Destruel, D Bumford, E. Onea, & L. Coppock. 2012. It-clefts are IT(inquiry terminating) constructions. *Proceedings of SALT* 22: 441-460.

접수 일자: 2016년 01월 29일

수정 일자: 2016년 02월 24일

게재 결정: 2016년 02월 24일